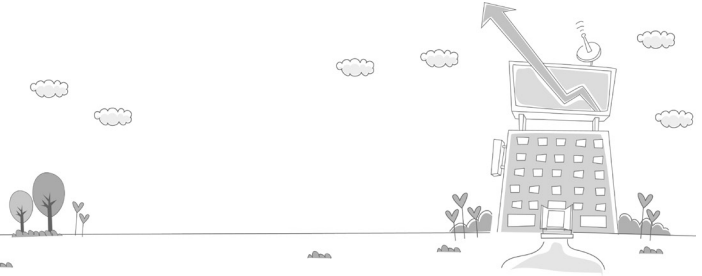


# 정부기관소식



## 농림축산식품부

### ‘월간 식품산업정보’ 창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국내외 식품산업 통계·정보에 대한 분석 및 연구를 강화하고, 그 결과물을 널리 알리기 위해 ‘월간 식품산업정보’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식품산업과 관련된 각종 통계와 정보를 수집하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10년부터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FIS: Food Information Statistics System, [www.aTFIS.or.kr](http://www.aTFIS.or.kr))’을 운영하고 있다. FIS에서는 식품관련 200~300개 통계표, 주요 식품원료 국제가격 등 DB 6종, 각종 식품관련 자료집 22종(13)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창간하는 ‘월간 식품산업정보’는 지금까지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외 식품 관련 통계·정보, 정책 현안에 대한 분석 및 연구 및 그 결과물을 식품산업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창간호에는 국내 거시경제 동향, 식품 분야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 등 식품산업 현황 및 전망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거시경제 동향 부분은 금리, 환율, 물가, 경기지표 등 국내외 주요 거시지표에 대한

분석 및 전망을,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에는 식품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소맥, 원당 등 주요 식품 원재료에 대한 국제가격 현황 및 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식품산업 주요 연구결과에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분석하여 식품산업 각 분야별 생산유발효과도 분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식품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10억 원 증가할 때 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이 22.5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계측되어 일반제조업 생산유발효과 20.5억 원, 건설업 생산유발효과 20.9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등 8개 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와 관련된 이슈 분석, 최근 중국 식품산업에 대한 SWOT 분석 자료 소개, 국내 식품산업 관련 주요 뉴스 등이 수록되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공공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활성화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조하는 ‘정부 3.0’ 패러다임에 발맞춰 앞으로 식품관련 통계·정보에 대한 분석과 자료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며 ‘월간 식품산업정보’가 국내외 식품 관련 통계·정보 및 정책 현안에 대해 활발한 소통의 창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월간 식품산업정보’는 국내 농식품 기업, 식품 관련 대학 및 연구소, 협회, 단체 등에 무료로 배포(이메일 및 자료집)될 예정이며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fis.or.kr](http://www.atfis.or.kr))’에도 게재되어

누구나 쉽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이메일 배포는 FTS 회원(4천5백명) 및 식품산업 정책 소식지 수신동의(3천명) 등 7천5백명 대상, 자료집은 관계기관 및 협회 등에 배포 계획)

### 농림축산검역본부

「2013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단체부문 수상기관 선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용호, 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11월 26일 카길애그리퓨리나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13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단체부문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은 검역본부 출범이후, 가축방역분야에서의 FMD·HP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청정화 노력, 동물용의약품 수출확대 지원, 꼼꼼한 동·축산물 검역을 통한 국내 축산업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 동물보호·복지 및 수의과학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박용호 본부장은 '2013 대한민국 최우수 공공 서비스 대상 수상'과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안행부장관상 수상'에 이어 이번 '카길애그리퓨리나 축산·사료 연구기술 대상' 선정 등 일련의 대외수상과 관련하여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ICT를 기반으로 하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관리 시스템 등 대민서비스 제공이 공공 정보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추구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정부 3.0'에 가장 적합

한 것임을 인정받은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 및 6차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정부3.0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 구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향후 기관운영 방향을 밝혔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선제적 현장방역 강화를 통한 가축전염병 검색률 향상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이주호)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 등 주요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축산물 안전을 위하여 '13년 1월부터 10월까지 방역·위생·검역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검색률 향상 등 선제적 현장방역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위생방역본부가 지난 1~10월 추진한 가축방역사업 실적을 보면, 가축전염병 조기 검색을 위하여 189천여호 1,418천여 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였으며, 324천 여호의 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질적인 농장방역실태점검을 실시했다.

농장방역실태점검 시 가축질병 의심가축 4,577건을 발견하여 '가축질병예찰실시결과보고서'와 함께 가축방역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2,457건(검사의뢰건수대비 54%)이 질병 감염가축으로 확인되어 관련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방역조치하였다.

※ '11~'13년 10월 검사의뢰건수 대비 가축질

병 검색률 : ('11) 26% → ('12) 38% → ('13.1~10월) 54%

또한, 구제역·AI 등 해외악성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을 위하여 전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월2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전화예찰은 총 3,736천여건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구제역·AI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사육·관리인 등 13.4천명에 대한 집중예찰과 구제역 백신접종 등 가축방역 정책사항 87건을 10,195천호에 집중 홍보하였다.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축검사사업은 도축장에서 소 886천여두, 돼지 13,205두를 검사하였으며, 검역시행장에서는 625천여톤의 수입식용 축산물을 검역·검사하여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을 검역기관에 신속히 보고함으로써 검역업무 강화에 기여하였다.

※ 도축검사 실적

- 소 : ('11년) 827천두 → ('12) 938천두 → ('13.1~10월) 886천두

- 돼지 : ('11년) 10,685천두 → ('12) 14,220천두 → ('13.1~10월) 13,205천두

※ 수입식용축산물 검역·검사 실적 : ('11년) 1,063천톤 → ('12) 905천톤 → ('13.1~10월) 625천톤

또한, 구제역·AI 등 주요악성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하여 가축질병 의심축이 신고된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총 30회 54개팀 72명을 투입되어 초동방역활동을 펼쳤다.

※ 초동방역팀 투입실적 : ('11) 666회, 3,638명 → ('12) 32회, 109명 → ('13.1~10월) 30회,

72명

아울러, 위생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의 조기 검색 및 축산물 안전공급을 위하여 방역사·검사원·관리수의사의 검색능력을 향상시키고, '14.5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을 위하여 선제적 현장방역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 나노 이용한 식품 중 잔류항생제 신속 측정기술 개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육류 및 가공식품 등에 잔류하는 항생제 농도를 신속히 검출하기 위해 나노, 바이오 융합기술을 이용한 '항생제농도 측정 방법 및 소형 측정키트'를 개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기술은 자성을 가지는 나노입자 및 염료가 첨가된 실리카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항생제를 선택적으로 검출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농도 측정에서부터 데이터 처리까지 온라인으로도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검사법 보다 검출 감도가 높고 분석 시간이 20분 이내로 짧아 축·수산물의 유통 전 신속한 잔류 항생제 검사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 연구는 식약처 기후변화대응 식품안전관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단국대학교 임흥빈 교수가 나노입자를 이용한 독자적 항생제 측정방법 및 키트를 개발하여 국내특허를 완료하고 미국, EU 등에도 특허 출원 중이다.

측정은 시료에 자성 나노입자를 넣고 항생제를 추출한 후 실리카 나노입자와 반응시켜 소형 형

광 레이저가 장착된 판독기로 항생제 농도를 측정한다. 항생제로 축·수산물에 많이 사용하는 엔로플록사신, 시프로플록사신, 살리노마이신 및 설파티아졸에 대해 약 0.05 ppb 수준의 농도까지 검출이 가능하다.

\* ppb(parts per billion) : 농도측정 단위로 십억분의 1을 나타냄

식약처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식품유해물질 측정기술 분야에서 나노, 바이오를 이용한 항생제검출 원천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위상 제고와 국민의 식품안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관련 기술은 현재 중소벤처기업 (주)센서테크에 기술이전하여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 자문회의’ 개최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영)은 12월 5일(목) 축산물품질평가사업의 현안을 진단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축산물품질평가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제5기 축평원 자문위원은 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및 학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허영 원장은 이날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조덕준 과장(제주특별자치도 축정과), 주선태 교수(경상대학교), 정구용 교수(상지대학교), 최윤현 조합장(경북대구한우협동조합), 김인식 대표(체리부로), 황선옥 부회장(소비자시민모임) 등 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문위원들로부터 축산

물품질평가사업에 대한 현안 문제점 해결 및 발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축평원은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들은 축산물품질평가사업 발전은 물론, 공공기관 위상에 맞게 정부3.0 「개방과 공유,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기관운영에 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구축하는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 폭설대비 축사·가축관리 요령 제시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올 겨울 많은 폭설과 한파가 예상된다는 기상청의 전망에 따라 농가에서 지켜야 할 축사·가축관리 요령을 소개하며 축사시설과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했다.

축사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폭설 시 축사 지붕에 과도한 눈이 쌓여있지 않도록 쓸어내리거나 축사 내의 온도를 높여줘 축사 지붕의 눈이 빨리 녹아내리도록 해줘야 한다. 노후화된 축사는 폭설에 의해 지붕이 주저앉을 수 있으므로 축사내부 중간에 지붕 버팀목을 미리 설치해 가축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축사가 개방된 우사의 경우 폭설 이후에는 축사 바닥의 온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볏짚, 톱밥, 왕겨 등을 충분히 준비해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경우 깔아주는 것이 좋다. 또한 축사 옆 배수로를 깊게 설치해 눈 녹은 물로 인해 습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축사가 폭설로 파손됐을 경우 긴급히 복구해주고 파손된 축사의 전기시설을 점검해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화재 발생이나 감전과 같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료급이와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리한다.

가축 관리는 기온의 급강하와 같은 외부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가축의 생산 활동과 유지에 좋지 않게 되므로 사료는 평소 급여량보다 10% 정도 늘려 급여한다. 개방식 축사의 경우 눈이 지속될 때는 가축의 피부표면에 붙은 눈이 열을 빼앗아 체감온도가 낮아지므로 가능한 빨리 없애주고, 축사 내에 깔짚을 깔아준다. 특히, 어린 가축이나 임신 가축방은 보온을 해주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이준엽 연구사는 “폭설이 예상될 경우 농가에서는 반드시 축사와 주변을 미리 점검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노후하거나 재래식 축사일수록 지붕상태를 세밀히 점검해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국립축산과학원

농진청, 오리협회와  
오리 사양관리 책자 발간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정부 3.0추진의 하나로 민·관 정보교류를 통해 오리협회와 함께 오리 사육농가들을 위한 ‘오리 사양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국내 오리 산업은 총 생산액은 2012년 기준 연간 약 1조 4백억 원으로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성장세와 산업규모에 비해 사양관리나



시설·환경 등과 관련된 기술 개발과 연구가 부족해 사육방법은 양계용이나 외국 자료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오리 사육농가에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과 환경조건을 반영하고 농가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육 지침서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총 11장으로 구성된 책자에는 오리의 품종과 특징, 시설과 환경, 사양관리, 방역·위생, 질병 등 그간 국내외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또한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육 기술 뿐 아니라 학술적 기초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과서 역할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오리 사양관리 매뉴얼’은 지난 2년 동안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해 국내 오리 전문가들이 자료 수집과 집필에 참여했으며, 한국오리협회를 통해 산업계 전문가들의 감수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책자 발간을 통해 국내 오리 사육 농가들의 사육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가금과 최희철 과장은 “발간한 책자가 국내 오리 사육 농가들이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유용한 지침서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 보다 많은 오리 연구 결과들을 반영하고 더 나은 개정판을 출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리협회와 함께 출간되는 본 책자는 앞으로 협회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오리 사육 농

가에 무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다.

##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13년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 시상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조규담, 이하 기준원)은 12월 18일 대전에서 ‘2013년 축산물HACCP 운용 우수작업장’으로 선발된 작업장들에 대하여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시상식은 김명연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강대진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노수현 과장,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창호 회장 등의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시상, 축사, 사례발표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다.

축산물HACCP운용 우수작업장 선발사업은 ‘10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12년까지 총 43개소를 우수작업장으로 선발하였으며, 사업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축산물HACCP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발굴된 우수사례의 전파를 통해 축산물HACCP 확산 및 운용수준 향상을 도모하며, 선발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수작업장으로서의 위생·안전적인 이미지 상승을 통해 매출 증가에도 도움을 주고자 함에 있다.

‘13년도 우수작업장은 축산물HACCP기준원 및 시·도가 추천한 작업장에 대하여 ‘12년도 조사평가 및 2~3년간의 정기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를 통과한 작업장을 학계·소비자단체·축산관련 연구원 등 축산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직접 방문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총 15개의 업종·축종에서 30개소 작업장이 선발되었다.

조규담 원장은 우수작업장에 대해서 상장, 명판, 부상 등을 수여하였으며 또한 우수사례집 및 홍보동영상 제작·배포 등 다양한 홍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업장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문표, 김명연 국회의원의 축사 말씀 중에 향후 우수작업장 선발사업 시상의 질과 폭을 넓혀 HACCP 운용 우수작업장들의 자긍심과 긍지를 심어주어 HACCP 제도의 저변확대와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피력하였다.

기준원은 본 사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축산물HACCP 운용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함으로써 축산물HACCP 참여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산물도매시장 운영 활성화  
워크숍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aT, 사장 김재수)는 지난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충남 천안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공영 농산물도매시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공무원,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관리사무소(관리공사) 임직원, 청과부류 도매시장법인 및 공판장 임직원 등 약 160여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 특히, 최근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제 중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과제의 하나인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선두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법인이 사례발표를 실시했다. 이로써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법인들에게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도매시장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도매시장 역할 제고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농식품 유통정책, 도매시장 운영 실적 평가와 같은 정부정책에 대한 발표도 진행하여 이해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협중앙회

**농협, 유통업체 농산물 공급실적  
최초 3,000억원 돌파!**

농협중앙회(농업경제대표이사 이상욱)는 11월 28일, 농협 농산물의 유통업체 연간 공급실적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10여년 만에 최초로 “3,000억원”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외부 판매확



대를 위해 2002년에 외부 판매 전문조직인 대외마케팅 부서를 설립하여 대형유통업체 등에 농산물 공급을 추진하였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 농산물 공급은 산지 도매상이나 공판장 중도매인이 대부분 공급하였고 산지농협은 전문성 및 인력부족으로 유통업체에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협에서는 대외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산지를 규모화·조직화하는 등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를 늘려갔다. 이렇게 시작한 대외마케팅 사업은 대형유통업체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과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2008년에 사업실적 1,000억원을 달성, 2010년에 2,000억원을 돌파에 이어 2013년에는 드디어 3,000억원을 돌파한 것이다.

안영철 농산물도매분사장은 “대외마케팅 사업 초기 유통업체 농산물 공급은 전문지식과 공급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에다 규모화·조직화된 산지도 없어서 계란으로 바위치기 정도로 어려웠다”며, “처음엔 ‘을’의 입장에서 농산물을 대형유통업체에 마케팅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으나 농산물 판로를 확보하고 제값 받고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